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4일간 관람객 2만명 '성황'

사전 신청 7000명 · 자매결연 3400명 · 미국 수련생 100여명 찾아

2무주 태권도원에서 지난 24일부터 개최된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27일까지 4일간 2만여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몰려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관람 신청을 받은 결과 약 7,000여명이 관람을 신청하는 등 국내외에서 무주 태권도원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대회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올라, 각급기관 및 487개 사회단체 3,400여명이 각 선수단과 자매결연을 맺어 경기가 있는 날에는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 환영 및 응원, 격려를 펼

을 전달하는 등 태권도의 성지를 방문한 해외 선수들에게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북도'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특히 26~27일에는 미국에서 태권도 수련생 100여명이 자국 대표팀 응원을 위해 입국해 조직위 측에서는 대표팀 경기일정에 맞춰 대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태권도 수련생들은 자신들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맥퍼슨 페이더를 열렬히 응원한 결과 4강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2014년 개원한 태권도원 T1 경기장 시설과 조직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칭

찬도 이어졌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이벳 용(캐나다) 선수는 "굉장히 좋은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더 열심히 경기할 수 있었고 정말 좋았다"고 말하고, 미국에서 방문한 율리아 김씨는 "태권도 대회에 참관신청을 했는데 미국대표팀 경기에 응원할 수 있도록 조직위에서 친절하게 안내 해주셔서 유익한 관람이 되었으며 태권도 성지에서 좋은 기억을 안고 간다"고 말했다.

송하진 조직위원장은 "관객들 맛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외국인 선수들 산골무주 매력에 '푹'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연계한 '마을로 가는 축제' 큰 호응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연계한 '마을로 가는 축제'가 외국인 선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28일 현재까지 1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30일까지는 훨씬 더 많은 선수들이 무주의 맛, 멋, 정을 느끼고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체험에 나섰던 팀들은 캐나다, 우크라이나, 남수단 등지에서 온 선수들로 이들은 설천면 효룡마을에서 '아쿠아리움' 체험을 했다. 선수들은 산채비빔밥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꽃마차를 타며 경기로 인한 긴장을 풀고 카누체험을 하며 한 여름 더위를 식혔다.

28일 무주읍 서면마을을 찾은 선수들은 서면마을 공원에 조성된 쉼다리를 건너며 해설사가 들려주는 쉼다리의 유래와 반딧불축제에 오면 볼 수 있는 납대천 쉼다리가 미국 CNNgo로부터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50선에 선정된 배경 등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스페인과 미국, 코스타리카, 일본 등지에서 온 선수들은 27일 적상면 치목마을에서 삼베 짜기를 직접 해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투어버스(서면마을 마을로가는축제)

보며 신기해했고 체험 후 동료 선수들과 꽃차를 마시며 산골마을 자연 속에서의 운치를 만끽했다.

무주군 마을만들기 사업소 김오수 농촌관광 담당은 "외국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로 가는 축제 무료 체험은 대회가 끝나는 30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마을로 가는 축제'는 일반인 관광객들을 위한 유료 프로그램도 진

행한다. 내달 2일까지 무주를 앞섬마을 등 13개 마을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대회기간 농촌관광프로그램은 영동역을 출발해 마을체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관람, 그리고 다시 영동역까지 가는 일정으로 특별히 주말 이벤트를 위해 대전과 전주, 영동을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삼각경제 · 관광벨트' 만든다

'2035년 기본계획' 확정

무주군이 중앙집중계획인 '2035년 무주군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해 무주군청 공보와 홈페이지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35년 무주군기본계획'은 무주군의 장기적인 도시 미래상을 담은 20년 종합계획으로서 인구와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환경 등의 전략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청정자연, 관광, 문화로 행복한 태권도의 도시, 무주'로 미래상을 설정한 무주군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관광문화도시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으로, 도시 공간 구조는 기존 2차 거점인 설천과 안성에 덕유산 일원을 추가로 반영해 무주-설천-덕유산을 연결하는 '삼각경제 · 관광벨트'

를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2035년까지의 목표인구는 통계청의 인구추이와 다양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사업을 통한 인구유입을 고려해 3만 명으로 계획되었으며, 토지이용 계획상 시가지 예정용지는 무주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 물량(7,704㎡ 반영)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개발 및 전략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건설교통과 도시개발 조영자 담당은 "무주군기본계획은 지난 6월 전북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었다"며 "무주군은 향후 20년 간 지속적인 발전 기회를 마련해 앞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시기능의 효율화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여성단체, 다도 · 킷트 교육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7일 장수문화예술관에서 2017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일환으로 '꿈이 있는 여성이 더 만들기, 행복담은 특별한 시간'을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다도와 킷트 교육으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는 해마다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참여로 군민화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체납지방세 징수율 67% '역대 최고'

진안군은 28일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8억6000만원 중 5월말까지 2억 1,400만원을 징수해 연말 징수목표액인 3억2,000만원의 67% 징수율을 거둬 동기간 역대 최고치의 징수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같은 높은 체납세 징수실적은 올해 초 수립 · 시행한 2017년 체납지방세 징수 종합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징수활동과 맞춤형 체납활동,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지속적인 독려와 체납처분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했다.

또한 진안군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3억2,200만원의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차량용 이용

현장추적 체납활동과 함께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들에게 대한 분할납부 유도 등 끈질긴 징수활동의 결과로 보고 있다.

군은 하반기에도 체납세 일소를 위해 금융재산조회, 카드매출채권 조회를 통한 계좌압류와 추심을 실시하고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를 통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경기악화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재고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체납자와 1 : 1 맞춤형으로 접근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사과 스마트 자판기 설치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인 지난 24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국내 최초로 사과를 판매할 수 있는 스마트 자판기를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설치한 스마트 자판기는 (주)스앤비에서 개발한 IOT기반 스마트 자판기로 터치스크린을 장착해 실시간으로 각종 정보, 홍보,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실시간 매출, 재고, 판매, 고장, 각종 통계 지원을 하며, 기존 자판기 운영사업의 비효율적 요소를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유지비용 절감, 매출 증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스마트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사과는 6단계를 걸친 세척 · 포장된 사과로 구매 후 바로 먹을 수 있으며, 사과주스는 아무 것도 첨가 하지 않은 100% 사과원액이다.

한편 반딧불 사과 스마트 자판기는 무주군에서 60%,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에서 40%를 출연해 설치한 것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지방보조금심의위 워크숍

진안군은 28일 진안읍 주민참여예산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합동 워크숍을 신약초타운 다목적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읍면 담당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으로 진행됐다.

실무교육은 참된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례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 우수사례와 직접참여 실천사례 그리고 지방보조금 부정 · 중복수급 사례 등을 살펴봤다.

한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사업 성과평가와 보조금 편성 및 대상자 선정 심의 등을 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권 복지허브화 활성화 교육

장수권역(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맞춤형복지팀은 산서면(20일)을 시작으로 장수읍(28일), 번암면(2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각 마을 부녀회장 등 70여명에게 복지허브화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복지허브 · 홍보'와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등을 진행했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해, 어려운 이웃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을 만들었다는 호평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

Healing 여행!

장수는 심심계곡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로 발길 닿는 곳곳이 관광휴양지이며, 고랑 고랑 먹거리마다 청정장수가 주는 선물로 가득합니다.

방화동계곡

승마체험장

외동자연휴양림 물별매장

방화동자연휴양림

NAVER 장수물 검색 장수군